

## 공을 잡는 법

살다 보면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며 놀랄 때가 있다.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혈액형이다, 별자리다, 관상이다, 나이다, 성별이다 해서 그들을 요모조모 범주화하여 이해할 여지가 많지만 유독 '나'라는 인간과 관련된 때 사정은 참으로 요령부득이 될 때가 많다. 하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원초적 낯섦이라든가 삶이 주는 의외성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과연 살아 있긴 한 건가' 하는, 지루하고 시시한 상념에 시시때때로 빠져들지 못할 일이다. 그것이 설령 자신의 '숨은 재능'과 관련되기는커녕 '잠재적 콤플렉스'라든가 '잠자고 있던 야수성'과 같은 난처한 발견으로 이어질지라도.

뼈아픈 각성이 됐든 아니면 축복어린 전환이 됐든, 기억컨대 당혹스러우리만치 낯설게 느껴지는 내 자신을 발견했던 순간들은 뜻밖에도 내 안에 내장된 어떤 '수동성'에 나를 전적으로 내맡겨 보던 시간들이었다. 되도록이면 더욱 과감히 밖을 향해 나를 무방비상태로 열어젖힐 때 나의 식성, 나의 주량, 나의 성적 취향, 나의 유머 감각, 나의 유치함, 나의 분노, 나의 애정, 나의 사고 패턴, 나의 문체들은 갑자기 안색을 바꾸며 내 뒤통수를 쳤다.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왕복 서간집이라는 형태를 띤 《인간을 넘어서》에서 우에노 치즈코라는 40대 여성 사회학자와 나카무라 유지로라는 60대 남성 철학자가 구사한 현란한 문체와 도발적 사유의 틈바구니에서 내가 유심히 들여다 본 건 바로 이런 '적극적 수동성'이라는 모순된 힘이 발산하고 있는 이채로움이었다. 도발(자극)하고 도발(자극)당하는 두 학자의 모습에서 나는 자꾸만 "성적인 관능의 영역에서 수동성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 바, 수동성을 결여한 성에는 껍데기 같은 것입니다"라는 우에노 치즈코 편지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마침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졌다. '수동성을 결여한 사유는 껍데기 같은 것이다'라고.

자칫 껍데기가 돼버릴 수도 있었을 두 학자의 사상에 알맹이를 채워준 그 '적극적 수동성'을 나는 '들어주는 귀'라는 말에서 발견했다. 이 수동적 '귀'는 두 학자의 도발적 사유를 가능하게 한 유일하고도 특별한 힘이다. 우에노 치즈코는 왕복 서간을 연재하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우에노 선생의 의외의 면이 잘 드러난다"는 지적을 받았으면서 그것은 오직 나카무라 유지로라는 '들어주는 귀'의 존재 덕분이라고 고백했다.

'들어주는 귀'를 언급하면서 결국 우에노 치즈코가 하려고 했던 말은 "도발에는 기본적으로 응하고 싸움을 걸어오면



이 글을 쓴 손유경은 문화기획집단 〈퍼슨랩〉의 기획위원으로 있으며 〈대담한 책읽기〉 〈인텔리전처〉의 공저자다. 서울대 국문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외국어대 강사로 있다.


맞서주며 올라탄 배에서는 내리지 않는다”는 그녀의 행동 원칙과 일맥상통한다는 것도 뒤늦게 깨달았다. 싸움을 걸어오는 상대에게 우선 나를 맡겨본다는 것. 나를 자극하고 현혹하는 상대의 유혹에 우선은 넘어가 본다는 것. 과연 어느 경지에 이르면 적의 품에 내 몸을 날려 그/그녀의 손에 내 몸을 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다가도 그/그녀를 힘껏 건어낼 수 있는지, 나로서는 아직 가늠하기 힘들다.

“주름진 구석구석까지 전부 열어 제치고 무방비상태가 된 저의 몸. 그렇습니다. 감수성이란 수동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남자친구들에게서 “너는 ‘하고 싶은 성’이 없는 거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줄곧 무언가 절대적인 수동성이 ‘저’의 핵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수동성의 수용이 저에게 여자임을 견디기 쉽게 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니와, 계속 ‘주체’ 이어야 한다는 저주를 짊어진 근대적 인간을 상대화하는 시각을 부여해 주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231~232쪽)

바깥으로부터의 자극에 깊고 강렬히 반응하는 ‘예민한 반응 그릇’이 되고 싶다는 우에노 치즈코의 말에서 나는 그녀의 솔직함과 용감함을 읽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녀만의 비전도 얼핏 엿보았다. 나카무라 유지로가 그의 편지에서 인용한 ‘상상력이란 수동적 능동성이다’라는 사르트르의 말이 이 대목과 겹쳐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일과 지금-여기와는 다른 현실을 꿈꾸는 능력(상상력)이 사실 다르지 않음을, 우에노 치즈코를 통해 어렵듯이 감지한다.

어쨌거나 ‘적극적 수동성’의 경지는 둘째 치고, 늪의 섹슈얼리티와 실버 페미니즘을 주된 화제로 삼은 우에노 치즈코와 나카무라 유지로의 탄복할 만한 대화에서 부끄럽게도 내가 우선 배워야 할 것은 아주 초보적 기술에 속하는 ‘공을 잡는 법’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피구의 여왕’ 소리를 들으며 운동장을 누빌 때조차 한 번도 잡아 보지 못했던 그 공. 공을 ‘귀신같이’ 피해 다니던 나는 늘 최후의 생존자로 남아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돌이켜보니 그건 참으로 우스꽝스런 승리다.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유별나게 날쌌던 어린이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적은 없지만 엄청나게 공을 무서워했던 것만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날아오는 공을 한 번이라도 잡아 봐야 하는데.

나는 우에노 치즈코와 나카무라 유지로가 서로의 문제의식을 주고받는 자세와 속도, 그리고 ‘귀신같이’ 그 완급을 조절하는 모습을 며칠 간 났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 기간

이 ‘귀신같이’ 공을 피해만 다니던 나로 하여금 ‘숨어 있던 콤플렉스’를 끄집어내는 계기가 돼 마냥 즐겁지 만은 않았던 것 같다. 역시 이렇게까지 났을 놓는 건 아니었는데. 



《인간을 넘어서》 나카무라 유지로 외 지음 | 정화경 옮김 | 당대 | 336쪽 | 값 12,000원